

농생명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논의

도, 전북연구원과 '농생명산업 컨퍼런스' 개최 농식품산업 혁신·농촌공간의 변화 등 3가지 토론

전북자치도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머리를 맞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2일 전북대학교에서 '2024 농생명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변화하는 농업의 흐름을 반영한 정책과 미래성장산업화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북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 나인권 전북도의회 농산경위 위원장, 노창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김명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하여

도내 농업인, 유관기관·시군 농업부서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이 '대한민국 농식품산업 혁신 구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고부가 식품·바이오 산업화, 식품원료 공급체계 개선, 수출산업 지원체계 강화의 3개 전략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그린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수직농장 맞춤형 생산 지원, 농식품 수출촉진법 제정의 제도 정비 등 실천 과제들을 제안했다.

주제별로 진행된 토론회는 1책선의 '디지털 전환과 농식품산업 혁신'을 주제로 권기현 한국식품연구원 디지털

탈팩토리사업단장이 △전북 식품산업의 디지털 공장 전환연구 및 김치 제조공정 실증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호진 교수(전주대 푸드 테크학과), 문성호 대표(우리치킨, 김치제조기업) 등이 도내 식품기업의 현주소와 창업·성장·선도의 단계별 내실 있는 정책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2책선은 '농촌 재구조화, 농촌공간의 변화'라는 주제로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촌공간 계획제도 도입에 따른 농촌협약 대상사업 및 참여범위 확대와 농촌 재생을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 사업 발굴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손재권 교수(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최재문 단장(김제 신활력플러스추진단), 백승석 부장(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관리에 대해 논의하며 전북자치도의 사업 추

진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3책선은 '기후변화 대응의 스마트농업'을 주제로 △농업의 디지털전환, 스마트농업에 대해 이시영 스마트팜개발과장(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이종원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원예환경시스템학과)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고, 방제·제초로봇, 트랙터 자율주행, 과일인식 로봇팔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혁신을 강조했다.

한편, 익산에서 스마트팜을 도입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정병두 대표(로즈밸리)가 토론회에 참여해 고비용 생산비, 전문기술 인력 부족 등 현장의 한계를 전하면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많은 청년농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행사는 농생명산업 전반에 첨단기술이 활용되면서 청년층의 스마트농업 취·창업이 증가하고, 일하고 쉬는 공간의 위계이션 농촌 모델이 도입되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가 많은 관심을 가졌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등에 대해 학계, 농업인,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정책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북자치도가 보유한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 등 산업 집적화를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확보로 농생명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됐다. 도전 의식을 가지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에 힘을 모아 글로벌 생명경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는 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2일 전북대학교에서 '2024 농생명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 추억의 보리밭으로 오세요

제19회 군산공당보리축제 개막식 열려

군산의 대표농업축제인 제19회 군산공당보리축제가 개최선언을 시작으로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환호성과 함께 5월 2일 개막했다.

공당보리축제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품으로 꾸준한 인기가 있는 흰찰보리의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한 군산의 대표 농업축제로 농촌경치와 체험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도심 속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무대구성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지역 출신의 배우 김성환씨가 진행하는 화합한마당이 3일 예정돼 있으며, 4일에는 전국노래자

랑 출신 군산 대표 흥부자 구하야씨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공당보리노래자랑, 5월을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농업문화를 알릴 수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고 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일준 군산시장은 "공당보리축제는 가난하지만 소박하면서도 정겨웠던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축제로 새롭게 변신해야 된다"고 밝혔다.

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는 지시간 추억을 되새기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올해 공당보리축제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5월의 보리밭을 마음껏 누비고 행복한 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부안 위도 현장 찾아 안전 점검 실시

전북자치도가 최근 한빛원전 1·2호기 연장운전 추진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직접 안전점검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운동목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이 2일 부안 위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방사능방재 개인방호장비와 가물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도면사무소에 보관된 개인방호장비 5종(보호복, 보호안경, 보호장갑, 신발덮개, 마스크)의 수량이 적정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보관장소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어 위도에 설치된 '환경방사선량 정보 알림 개방형 시스템'을 방문해 표기가 제대로 표기가 이뤄졌는지와 관리상태에 대하여 점검했다.

다음으로, 가물때에 의한 위도저수지 수위저하에 따라 비상공급 용수 확보를 설치한 중형관정(5공) 개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운 실장은 현장 점검 후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개인 방호물품과 경보시설 설치 △식도에 공급하는 식수 해저 관로 △지방도 703호선 선형계량 및 해안도로 침식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주민숙원사업을 청취했다.

/이만호 기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영

전북자치도, 시군 보건소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유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기온·습도의 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월 1일부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주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살모넬라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캄필로박터균감염증 등이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단체모임·여행·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집단 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연락망

을 구축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해 설사, 구토와 같은 위장관 증상을 보일 경우 집단환자 발생 의심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시·군 보건소, 당직실 또는 의료기관이나 기관장의 신고를 접수한 후 발생규모에 따라 해당 시·군 감염병 역학조사반과 위생관리부서, 도 및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출동,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시 대응능력 점검을 위한 비상소스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장 상황을 부여하여 도 주관 훈련을 실시하며, 비상연락망 정확성 확인 및 실제 대응시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명옥 전북자치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청 소속 사업장 안전보건 현장 점검

전북자치도가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속기관에 대해 빈틈없는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속 본청,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35개 사업장에 대해 '2024년도 안전보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소속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2명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2명이 점검반을 이뤄, 각 일정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보건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다. 먼저 안전보건교육은 각 사업장에 임명된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 및 대응 요령, △관리감독자 업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작성 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현장점검은 △2023년 위험성평가로 확인된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여부 현장확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별로 구비해야 할 서류 확인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